

말세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End of Time an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마가복음(Gospel of Mark) 13:1- 13

Nov 18, 2018

사람들이 흔히 말세야 말세야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세는 세상 역사가 끝나는 때에 왔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과학적인 증거를 보아도 이 세상은 분명 언젠가 끝날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멈추지 않으면 인간은 대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역사는 언젠가 끝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세는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말세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건설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반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제자가 말한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이미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46 년간 수리하고 증축해 장엄한 성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기도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헤롯성전의 장엄함에 대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면에서 보는 성전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놀라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엄청난 광채의 반사때문에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성전 돌들 중 어떤

것들은 길이가 12 미터 빛 높이가 3.6 미터 넓이가 6 미터였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헤롯 성전의 수 많은 거대한 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중 한 돌은 길이가 15 미터가 넘고 높이도 2.5 미터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굉장히 감탄과 흥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엄청나게 환호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 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들은 한 자리씩 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웅장한 헤롯성전도 자신들이 차지해 관리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백성들에게 우주의 중심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던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 보다 귀한 것이 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 살면서도, 유대백성들을 성전을 보며 다가올 좋은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세상이 끝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둘러 앉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입니다./ 이곳에 둘러 앉았을 때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꼭 참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첫째, 언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느냐? 즉 언제 세상이 멸망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sign)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2 절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sign)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즉 징조, sign)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한 가운데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루터는 시대를 읽고 부패한 교회를 향해 외치며 종교개혁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칼빈은 27 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 종교 개혁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왔던 초기선교사들은 시대를 읽었습니다. 저 멀리 조선 땅을 찾아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한글이 더 널리 보급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재난**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받게 될 **핍박**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 미혹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5 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1 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한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이 예사람들을 거짓의 길로 이끌려고 유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넘어 뜨리려 온힘과 계락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2 제자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가 로마와 큰 전쟁을 치르기 전 수십년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유대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자칭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도 끊임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 모든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잘못 해석하며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말세에 환난가운데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 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나라간에 서로 싸웁니다. 거기다가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나 굶어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세의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작 더 본격적인 재난은 그 이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A.D 66 년 부터 로마에 대항해 제 1 차 유대-로마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오랜 식민지배와 세금 정책에 분노가 쌓여있었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로마황제의 신상이 세워지는 일까지 벌어지자 유대인들은 전면적으로 무장봉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군대를 몰아내고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에 네로황제의 아들 Titus 와 로마의 장군이 6 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47 일에 걸친 공격 끝에 갈릴리의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사망자는 4 만 명에 포로는 1,200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훗날 《유대 전쟁사》를 집필하게 되는 역사가 요세푸스를 포함한 두 명만이 자발적으로 항복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피한 열심당을 비롯한 유대반란군은 예루살렘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 때 유대의 열심당은 친로마적인 제사장들을 죽이며 예루살렘에서 동족간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깥으로는 로마와의 전쟁, 안으로는 동족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A.D. 70 년 유대는 로마에 무너지고 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금빛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히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는 성전안에 수 많은 성물과 보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도 말세는 끝을 향해 달려 갑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전쟁이 계속됩니다. 1 차 대전에서만 대포, 총, 독가스 공격과 전쟁 중 병으로 죽은 사상자가 8 백 50 만명에 이릅니다. 2 차 대전으로는 무려 6 천 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1940 년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3%가 전쟁으로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작고 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이 끝날 때 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세속적인 것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퍼져나가는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퍼뜨리는데 말세의 신자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째는 핍박 가운데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은 사람들로 부터 받은 환난입니다. 9 절 부터 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실제로 사도행전에 4 장 부터 보면 제자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역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공회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사도들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재판을 받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환난에도 초대교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신자들을 뚝뚝 뭉쳐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환난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힘써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뚝뚝 뭉쳐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

예수님께서는 10 절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수 많은 전쟁과 재난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Good News)이란 말입니다.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끝나고 있다는 기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말세에 세상 눈으로 보면 재난과 핍박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에 까지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1 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 장과 5 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끌려 갑니다. 여기서 배움이 부족한 제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그 때 가야바와 그 밖의 다른 고위 제사장들은 "학문 없는 범인"인 사도들이 제대로 변호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기탄 없는 답변에 제사장들의 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바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핍박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게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거짓선지자의 미혹이 있고,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일로 핍박받은 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세에 신자들이 보거나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퍼져나가는 일종의 산통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은 바로 산통의 고난을 넘어 있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신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이 돌들이 다 무너지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정신 못차리다가는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말세에 마귀는 환난을 통해 신자들을 넘어 뜨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은 사람은 말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말세에 마귀는 핍박을 통해 신자들을 넘어 뜨리려고 합니다. **이 때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정신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시작된 이후, 핍박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땅으로 건너온 필그림 창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Puritan)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힘을 쓰다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6 세기 영국에서 메리 여왕(Queen Merry)은 1553 년 부터 6 년을 다스렸는데,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개신교 지도자 토마스 크램머(Thomas Crammer)를 비롯한, 약 200 명의 감독들, 학자들 그리고 남녀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화형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1620-1640 년대까지 북미로 건너온 청교도들만 약 22,000-50,000 명에 달합니다..

이 청교도들 중 제일 처음 온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입니다. 북미 대륙을 발견은 콜럼버스가 왔지만, 북미로 처음 이주한 사람들은 청교도 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Plymouth) 항구에서 1620 년 9 월 6 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땅을 향합니다. 25 명의 선원과 남자 78 명 여자 24 명 포함 102 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탔습니다. 이 때 이들의 목적지는 이미 돈을 벌기위해 온 사람들이 정착지를 건설한 버지니아(Virginia)였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그해 11 월 11 일 바람때문에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메사추세츠 Cape Cod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5 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 월 16 일 현재의 플리머스 (Plymouth)에 정착했습니다. 63 일간 3,400 마일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이 도착한 날을 토요일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기위해 주일을 배안에서 보냈습니다. 위험한 항해 중에 청교도들을 많은 찬송을 불렀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메사추세츠의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된 겨울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승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해(1620-1621) 겨울, 2-3 개월

내 102 명 중 절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1-2 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 명씩 죽어나갔다. 이제 50 명만이 살아남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6-7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땀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합니다.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힙니다.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하여 먹을 것을 마련합니다. 이 환난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환난가운데도 필그림들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땅을 파서 다듬고,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자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 온 다음 해인 1661 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부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둘째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먹었습니다., 셋째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싸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90 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pumpkin pie)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됐다.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집이 아닙니다. 통나무들을 잘라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제 16 대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매년 정기 감사절로 지킬 것을 제안했고, 의회는 이를 가결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마다 11 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Thanksgiving Day 는이런 깊은 신앙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0 년전 시대의 징조를 읽었던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저 멀리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글을 더 널리 보급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청교도들은 400 년전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신으로 미국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끝을 향하여 날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더 분명하고 튼튼하게 세워져갑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힘써 살라 하였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400 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예배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가 메이플라워 청교도 믿음을 계승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씨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 처럼 말세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